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,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맞이 어촌마을 특산물 할인전 진행

2021. 1. 26.

- **한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30% 할인 1인당 최대 3만원 할인**
- **새우장, 전복장, 감태, 과메기 등 질 좋은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봬**

2021. 1. 26.
서울 – 쿠팡이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설
명절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, 어촌 특산물의 판로를 키운다. 쿠팡은 오는 2월 28일(일)까지 한달 동안 '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30% 할인행사'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쿠팡은 고객들이 어촌마을에서
생산하는 질 좋은 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. 이번 행사 상품은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, 어촌 6차산업화시범마을 등 어촌관광경영체에서
제공하는 특산물로,
마을에서
직접 제조하거나 채취한 수산물로 구성됐다.

특히, 백 가지 맛이 있다는 화성 백미리마을의
새우장과 전복장,
세계 5대 청정 갯벌 가로림만이 있는
중리마을의 감태,
그리고
겨울 별미인 포항 창바우마을의 과메기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.

쿠팡 회원이라면 누구나 해당
기획전을 통해
30% 할인쿠폰을
다운 받아 원하는 특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.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. 대형 수산물 가공업체가 아닌
현지 주민들이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재고량에 따라 할인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.

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“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번 기획전을 기획했고,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”고 전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